

韓美 금리역전 장기화... 달러채 등 해외자산에 뭉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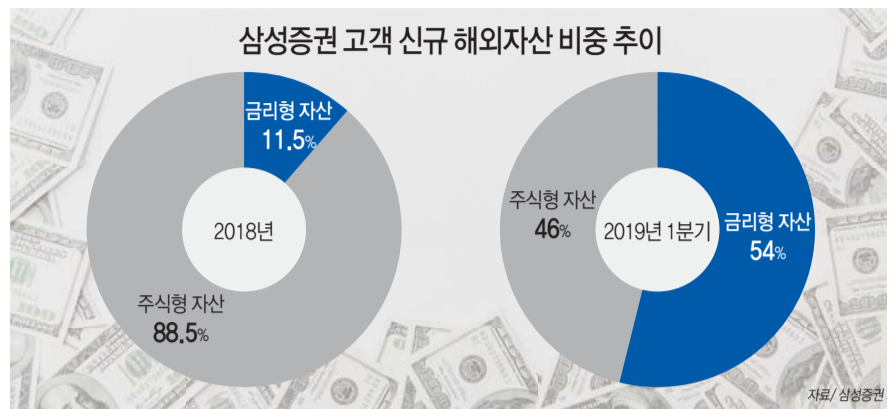
삼성증권, 해외 투자규모 1.8조
금리형 자산 5100억, 54% 차지
작년 증가분 11.5%의 4배 달해

한·미 간 금리역전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전망이 지속되면서 국내 대다수 투자자들이 달러채권 등 금리형 해외자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지난 1분기(삼성증권) 고객의 해외자산 총 투자규모가 1조 8000만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매 후 재투자 등을 제외하고 새롭게 유입된 신규 해외투자 자금은 9500억원에 달해 신규 투자 또한 크게 늘었다. 신규 해외투자 자금 기준으로 볼 때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전체 증가분의 2배에 이르는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

투자자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 등



금리형 자산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올 1분기 신규투자된 해외자산 중 달러채권 등 금리형 자산에 유입된 금액은 5100억원 수준으로 전체 해외자산 신규 증가분의 54%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한해 동안의 해외자산 신규 증가분에서 금리형 자산의 비중이 11.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주식보다 안정적

인 투자 상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올 1분기에 신규 투자된 해외자산을 상품 형태별 잔고기준으로 보면 금리형 자산을 편입한 신탁(39%), 해외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및 환연계 주가연계파생상품(DLS·21%), 해외채권(15%), 해외주식(13%)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박태근 글로벌

채권팀장은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전망과 함께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크게 낮아지며 국내보다 더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해외금리형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자산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 덕에 올 1분기 말 기준 삼성증권 고객의 누적 해외자산도 10조원을 돌파해 10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객 해외자산의 올 1분기 기간 평균 수익률도 국내투자를 대표하는 코스피 지수의 1분기 상승률(4.88%)을 크게 앞선 9.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사재훈 리테일부장은 “올 1분기 해외자산의 증가추세를 보면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앤캐리트레이드)이나 대만의 포모사 본드 같은 금리형 해외투자자의 머니무브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판단

된다”며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투자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리형 자산에 대한 시의적절한 투자정보와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1월 ‘해외투자 2.0’ 선포 이후 달러채권 전담데스크를 설치하는 한편 본사 전문가들이 전국지점을 순회하며 글로벌 채권시장 전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투자 2.0은 삼성증권이 일부 적극적 투자자들이 글로벌 성장주식에 한정해 투자하던 시기를 ‘해외투자 1.0’으로 보고 최근 변화하는 투자 흐름에 대해 명명한 것이다. 또 삼성증권은 지난 3월 글로벌 제휴사 애널리스트를 한자리에 모아 ‘2019 해외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해외투자정보 제공에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한화자산운용

글로벌 리츠펀드 직접운용

한화자산운용은 그동안 미국 라살 운용에 위탁 운용하던 글로벌 리츠펀드를 직접 운용으로 전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명도 ‘한화글로벌리츠 로벌리츠펀드’에서 ‘한화글로벌리츠’로 변경됐다. 글로벌 리츠펀드는 전세계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해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과 배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한다. 직접운용은 도이치뱅크 자회사 DWS그룹 내 글로벌 부동산 운용사 리프의 자문을 기초로 한화자산운용 멀티에셋팀이 맡는다.

/손영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18일 사회적책임투자 세미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UN 산하 책임투자원칙 기구(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회적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책임투자 동향 점검을 통해 국내 사회적책임투자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진 기자

한국거래소

25~26일 M&A 설명회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5~26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인수합병(M&A) 교육 및 매도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M&A 절차, 기업 가치 평가 등 M&A 전략 수행에 필요한 사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매도기업 설명회에서는 15개사가량의 매물도 소개할 계획이다. ‘KRX M&A 중개망(mna.krx.co.kr)’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회원은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80개사까지 참석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무너진 강남불패... 서울 아파트값 21주 연속 하락

감정원, 전국 아파트값 0.11% ↓
수도권 -0.10%, 지방권 -0.12%

서울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4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달 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사이 0.11% 하락했다. 지난주(-0.10%)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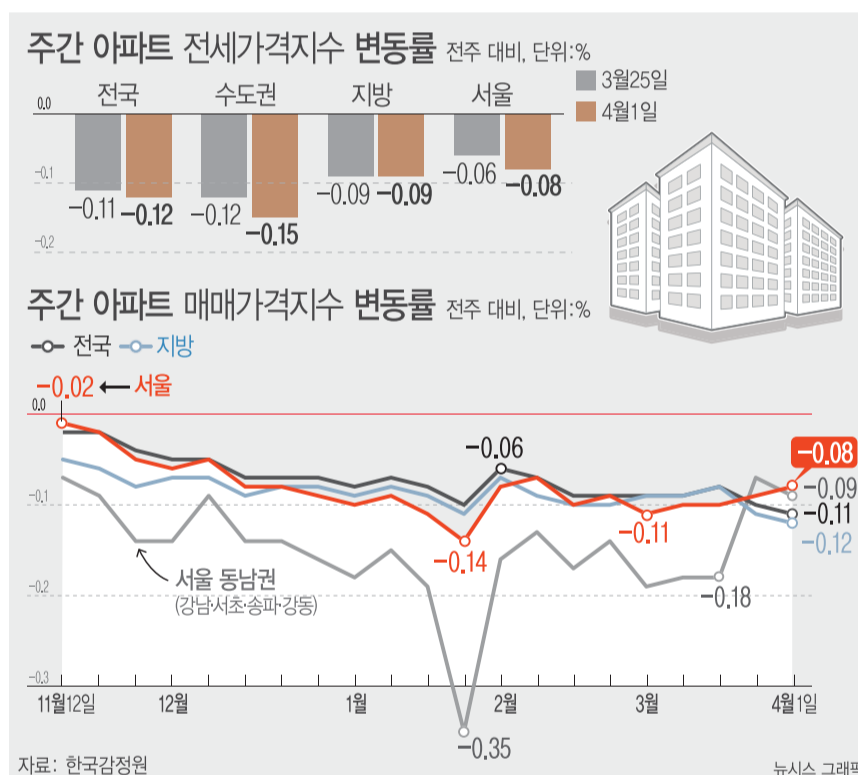
이 기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이 각각 -0.10%, -0.12%로 확대됐다.

다만 서울의 하락폭은 -0.08%로 전주(-0.09%)보다 축소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 정부 규제정책과 대출규제 등 다양한 하방요인으로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되며 21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 14개구는 -0.07%로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종로(0.0%)와 강북구(0.0%)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성동(-0.21%), 노원구(-0.09%)는 투자 수요가 많았던 행당·상계·월계동 위주로, 용산구(-0.07%)는 거래 감소로 급매물이 누적된 단지 위



주로 하락했다.

강남 11개구는 0.09% 떨어져 지난주(-0.11%)보다 하락폭이 작아졌다. 송파구(-0.04%)와 강남구(-0.05%)는 저가 급매물이 소화된 일부 단지가 추격 매수 없이 관망세나 대다수 단지에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18%)는 투자 수요가 몰렸던 단지 위주로, 서초구(-0.11%)는 구 외곽의 소규모 단지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다.

경기는 지난주 -0.12%에서 이번주 -0.13%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과천시가 추가하락 우려로 신축 및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돼, 0.39%의 변동률을 보였다. 다만 지난주(-0.91%)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줄었다.

인천은 지난주 0.01% 상승했다가 이번 주 -0.02%로 하락 전환했다. 계양구(+0.26%)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근 위주로 상승한 반면 남동구(-0.07%), 연수(-0.23%), 중구(-0.21%)에서 하락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가 -0.09%로 전주(-0.08%)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세종은 -0.11%에서 -0.22%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행복도시 내 외곽지역과 세종시청 인근 소담동에서 하락하고, 조치원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아파트 전세값도 전국적으로 0.12% 떨어지며 전주(-0.11%)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0.12%에서 -0.15%, 서울은 -0.06%에서 -0.08%로 각각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누적된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주물량 유무·정비사업 이주 수요·직주근접 수요 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이 -0.02%에서 -0.21%, 강동이 -0.15%에서 -0.30%로 큰 폭 하락했다. 강동구는 인근 하남시 입주 물량 및 구내 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만 송파구(+0.10%)는 헬리오시티 입주 막바지 및 재건축 이주수요로 상승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NICE신용평가 “‘IPO 잠정보류’ 이랜드리테일, 신용도 영향 제한적”

NICE신용평가가 이랜드리테일의 기업공개(IPO) 잠정 보류 및 자사주 매입에 대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NICE신용평가는 이랜드리테일이 자사주 매입 후에도 재무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점, 소요자금의 일부는 이랜드월드에 대한 대여금 회수로 충당할 계획인 점, 2018년 말 연결기준 약 4368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번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이랜드리테일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이랜드그룹은 지난달 22일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했던 이랜드리테일의 IPO를 잠정 보류했다.

이랜드그룹은 이번 IPO를 통해 오는 6월 19일까지 프리 IPO 투자자가

보유한 이랜드리테일 투자지분을 구주 매물로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IPO가 보류됨에 따라 프리 IPO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전량 자사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ICE신용평가는 “프리 IPO 투자자가 행사해 왔던 그룹에 대한 재무적 통제 수단의 소멸과 함께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이랜드월드의 통제력이 회

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랜드월드의 신용위험 변동은 여전히 이랜드리테일의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중요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이번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이랜드리테일의 자금조달을 위해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K-SWISS를 매각, 매각대금으로 이랜드리테일로부터의 차입금을 일정 부분 상환할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의 자사주 매입효과를 감안할 때 이랜드월드의 연결기준 자기자본 감소와 순차입금 증가가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